



이주의 물결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2022 로잔 디아스포라 컨설팅,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사람들은 머물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곧 종교의 움직임을 만들고, 이로써 움직임은 복음 전파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이동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개방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월하게 받아들인다. 이에 수용국의 교회는 이동 중인 사람들을 환대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는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체류지의 학교 및 교회가 이주민과 어떻게 교류하느냐에 따라 이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말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의 물결 안에는 아프리카인들이 있다. 그들은 나라와 대륙 안에서, 그리고 대륙을 넘어서 움직인다. 수 세기 동안 아프리카 밖으로 이주

한 긴 역사가 있으며, 이 대규모의 장거리 이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추진력을 얻었다. 에모리 대학의 세계적인 기독교학자 제후 핸실스(Jehu Hanciles)는 16세기와 19세기 사이의 노예무역 기간에 아프리카인들이 유럽과 아메리카로 어떻게 강제이주를 당하였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인의 존재가 북미와 남아메리카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정치경제, 환경, 서구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세계화에 의해 촉발된 최근의 아프리카 이주는 1960년대 경에 시작되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가속화되었다. 대한민국 내에도 아프리카 이주민의 숫자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7면 '이주민다이제스트' 참조.)

아프리카 이주민 대다수는 종교적 감수성이 높아 독실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교육·사업·스포츠·예술 등 서구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쳤지만, 특별히 그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아프리카 신학자 존 음비티(John Mbiti)는 "아프리카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그들의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유지한다. 예컨대 기독교는 유럽인 사이에서 쇠퇴하고 있지만, 이민자 공동체 사이에서는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에서 기독교를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영국 런던에 있는 '킹스웨이 국제 기독교센터(KICC)' 및 이와 같은 일부 대형교회를 설립하여 이끌고 있다. 수많은 소규모 교단이 아프리카를 넘어 복음을 전하려는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며 서양에서 교회 개척에 힘을 모으고 있다. 서구의 교회 수가 감소함에 따라,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상당수는 서구를 선교 분야로 보고 있다. 또한, 다수의 아프리카 이주민이

정착 이후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 이처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행하는 교회에 기반을 둔 총체적 선교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로잔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DN)는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이주민 교회의 훈련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GDN의 디아스포라 사역 컨설팅은 매년 여러 대륙에서 주최된다. 2021년 로잔GDN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이주민의 이동과 복음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가상 회의를 열었다. 올해는 8월 23일~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디아스포라 아프리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지는 이 행사를 주목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8월호 기획으로 국내 아프리카 이주민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African Diasporas

8·9면

디아스포라 시대에 다문화 사역의 역할

다문화 역파송 사역현장 리포트: 국내, 독일, 그리고 아프리카



이성춘 선교사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

1. 들어가기

사역의 전문화: 혼자서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우리는 슈퍼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 10명이 감당하는 일을 혼자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나 좋은 리더는 10명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역할, 권한을 줄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혼자서 10배의 사역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소진되고 말 것이다.

1인의 절대적인 영향력보다 공동체를 통한 다수의 다양한 은사가 더 큰 열매를 가져온다. 이는 다문화, 이주민 사역과 관련이 있다. 다문화 사역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이주민의 시대이자 도시화의 시대이다. 난민들의 움직임 속에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이주가 있다.

2. 이주민 유학생 사역

1) 국내 이주민 유학생 사역

(1) 다국적 신앙 공동체

필자는 전주의 All Nation Center에서 4월 17일 부활주일 설교를 하였다. 여러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한국말과 영어를 교차로 사용하여 선포하였다. 아프리카의 감비아와 기니 학생들, 중미 과테말라에서 온 학생,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학생도 참여했다. 이곳은 적어도 1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다국적·다문화적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2) 예배의 토론회 설교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하는 동시에, 인쇄물로는 중국어·한국어·미얀마어로 된 설교문이 참여자에게 제공되었다. 설교는 일방적 선포로 끝나지 않고 5개 정도의 질문을 던져 언어별로 상호 토론을 가졌고, 총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토론을 통해 말씀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나눔 시간을 통해 다같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결단할 수 있었다. 이는 이주민 유학생을 위한 새로운 예배 스타일이었다.

2) 튀빙겐 대학에서의 국제 교회사역

(1) 다국적 삶의 공동체

필자는 독일 튀빙겐 대학교의 독일인과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국제교회 및 국제기독교센터에서 사역하며 보았던 그때의 현상이 전주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았다. 당시 7~10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 독일인들은 국제교회에서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다. 또한 독일어 성경공부, 강연의 밤, 나라별 문화소개의 밤, 찬양의 시간, 중국어 학교 등의 활동시간이 있었으며, 5~7명과 공동 기숙하는 삶의 공동체였다.

(2) 아버지 역할의 돌봄 사역

당시 필자는 40대 중반이었고, 이즈음 한 50대의 독일 목사가 튀빙겐 대학교회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취임식에서 나는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목사로는 너무 나이 든 것이 아니냐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멘토이자 친구인 은퇴하신 독일 목사님의 사모님께 물었다. 이분은 잠시 필자를 바라보더니, 집을 떠나온 독일 학생들에게는 아버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는 또래의 친구들뿐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나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었다. 우리의 집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5~7명이 거주하는 공동 주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3. 다문화 역파송 사역자 파송

1) 국제교회의 사역자 역파송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역을 국제교회 사역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보니 이 사역은 다문화 사역이자 이주민 역파송을 위한 사역이었다. 이주민 시대에 함께 감당할 사역이었던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 중 인도에서 온 무아과 목사, 미국에서 온 커트 전도사, 독일의 베스트만 신학생, 중국에서 온 신학생과 찬양인도자 등은 자기 민족 또는 다른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자이자 선교사로 세워졌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역했고, 그들을 다문화 역파송 사역자로 파송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족을 대표하는 기독교 대표선수였다.

2) 디아스포라 시대의 사역자 역파송

바울선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오래 전에 시작했고, 서울·안산·파주·전주·광주·제주도에 다문화 및 이주민 사역현장이 있다. 이곳 선교 현장에서 다문화, 이주민 역파송 사역자가 나오고 있다. 전주의 ANC의 과테말라에서 온 유학생은 학업을 마치고 다문화 역파송을 통해 선교사역자가 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기니와 감비아 학생들은 자기 종족을 위한 선교회를 구성하고 기도하고 있다.

다문화 사역의 역파송은 이미 독일에서 일어났고,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사역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의 역파송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4. 아프리카의 다문화 역파송 사역현장들

1) 신학교: 순교자적 역파송 사역자 - 에티오피아 사례

아프리카의 허브인 에티오피아는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에 속한 국가이다. 필자가 방문하여 특강을 했던 에티오피아의 한 신학교에는 60~70명의 학생이 모여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주변국에서 이주해온 신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다문화 이주민으로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자신들의 고국인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으로 돌아가 복음 전도사역을 감당하고자 이주민 역파송 사역자로 헌신한 이들이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 현직인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고 응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 에디오피아 현지 사역훈련 모습

현지인 파송 사역과 다문화 사역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기독교 난민 현장은 곧 역파송 사역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

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교 자적 헌신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았다.

2) 난민 현장: 전략적인 역파송 사역자 양성소 - 남수단 사례

난민을 통한 역파송은 남수단의 난민 사역 현장에서도 일어났다. 인종 갈등과 종교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피난하여 온 260여만 명의 난민촌에는 다양한 종족의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46개 종족의 기독교인들을 그곳에 모아 주셨다. 이들을 잘 섬기는 일은 곧 이들을 순례자적, 순교자적인 역파송 사역자로 훈련하는 일이다.

이 난민수용소에서는 아프리카 고난의 현장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씨개로 보호를 받고 사람들의 환대와 섬김을 통해 회복과 헌신으로 재무장한다. 난민을 향한 환대와 섬김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고난의 현장, 갈등과 분쟁의 현장으로 보내 생명을 나누는 이, 화해를 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로 역파송을 이

룬다. 따라서 기독교 난민 현장은 곧 역파송 사역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되고 있다.

5. 역파송 사역자를 위한 선교 신학의 확립과 영적 각성

1) 선교 신학의 재확립과 선교사 양성으로 목표를 재설정 - 우간다 사례

우간다의 RTC(Reformed Theological College), 곧 개혁신학교에는 신학과, 예배음악과, 유아교육과가 있다. 또한 우간다, 케냐, 브룬디, 수단, 탄자니아, 르완다에서 이주를 와서 수학하는 다수의 신학생들이 있다. 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한 선교사는 학생들의 신분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멘토링하고 그들의 삶과 사역에 동행하고자 노력한다. 학생들을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로, 또한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진 역파송 사역자로 귀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아프리카인이 생각하는 선교사 이미지가 서구 선교사의 부유함과 화려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어,

선교사가 되라고 권면하기가 어려운 현실의 장벽이 있다고 한다. 고비용의 선교사, 군림하는 선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선교사들을 통한 저비용, 자기 비움의 성육신적 삶의 모습, 현지 인화 된 삶의 모습 등을 통해 새로운 선교사 모델을 세워가야 한다. 목회자 양성은 곧 선교사 양성이어야 한다는 선교적 자각과 열성이 RTC의 모든 선교사 교수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2) 영적인 각성을 통한 다문화 사역 현장 - 르완다 사례

르완다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족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잔악한 학살과 파괴가 자행된 곳이다. 전쟁으로 인해 르완다와 주변국의 사회 전체 및 개개인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종족 갈등은 기독교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피(종족)는 물(기독교)보다 진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유럽의 30년 종교전쟁과 같은 유형이었다.

르완다의 선교사는 르완다 사태의 28주년을 맞이하여, 르완다가 영적인 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통해 이전의 기독교 국가로서 믿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의 소망은 르완다에 이주해온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등의 주변 국가 기독교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고국의 무슬림 지역으로 역파송하는 일로 지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종교 전쟁으로 인해 30년간 영적인 황폐화가 일어나고 나라의 땅들이 초토화되었을 때, 경건주의가 일어났다. 교리가 아닌 말씀 중심,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운동과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르완다에는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물결은 역파송 선교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6. 나가기

1) 선교의 국제화: 다문화 역파송 사역자 파송과 현지인 선교사 파송

한국 선교사는 국제 선교단체나 국내 선교단체에 허입되어 사역할 수 있다. 현지의 교단이나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도 국제적인 협력과 사역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선교회가 되려면 국제적인 선교회의 구조와 멤버십을 가진 선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울선교회는 현지인 선교사 파송 제도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사역을 통한 다문화 역파송 선교사역을 일으키고 있다.

2) 선교의 역동성: 디아스포라 시대에 다문화 사역의 역할

현지인 파송 사역과 다문화 사역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단일문화 속 단어 종족 구성은 편안함을 줄 것이다. 그러나 모자이크식 다양성의 확장성은 위대하다. 교회에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자 영적 쇄신 프로그램을 시도하지 않았어도, 다문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독일 목회자들은 목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교회 현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며 사회적 연합을 이루는 장점도 보였다.

이러한 다문화 역파송 사역은 한국과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과 선교 운동은 제도화된 신학교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비정규적인 소규모 성경학교, 신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개교회에서도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선교사들도 여기에 탄력성을 제공하는 영적인 공급원,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Kalayaan Cyber Christian Network in partnership with Leadership International

TRAINER'S TRAINING

AND LAUNCHING OF OUR KALAYAAN BIBLICAL LEADERSHIP TRAINING PROGRAM

JULY 21, 2022 (THURSDAY) | TIME: 2PM-5PM | VICTORIA VALLEY SUBD. ANTIPOLLO, RIZAL #18 Sunbird Drive

For inquiries and concerns, kindly contact Bro. Dave Camuyong, or send us message

Kindly fill out this Google Form: <https://forms.gle/BdKm691vqAJ2b1na6>

- Training Centers
- Church Leaders Local Network
- Missionaries with Training for Pastors & Church Leaders
- Bible Schools

하쿠나 마타타! 아프리카 이주민과의 대담

지난 2006년 한국으로 이주 온 나이지리아 이주민 페이스(Faith) 씨

나이지리아 남부에 있는 델타 주(Delta State)는 나이지리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으로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도는 아사바이며, 나이지강의 삼각주(delta)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주에는 25개의 지방 정부가 있지만 치안과 납치 문제로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특별여행경보제도 적색경보 발령지역이기도 하다. 경기도 송탄에는 이곳 출신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살고 있다. 남편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16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페이스(Faith) 씨이다. 본지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특집으로 페이스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삶의 여정을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12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큰고모를 도우며 매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땅콩을 심고 거두어 기름에 튀긴 후 거리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이외에도 카사바(cassava)의 뿌리를 갈아서 건조시킨 다음 팜유를 섞어 큰 솥에 넣고 볶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garri)라고 하는데, 서아프리카에서 주식으로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고된 과정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카사바를 곱게 썰어서 가루로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식자재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미용 기술을 배웠고, 미용으로 번돈으로 학교도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딤크리스천교회를 다니다 지금의 남편을 교회에서 만났고, 지난 2006년 교회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나이지리아 리딤크리스천교회의 지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현재 출석하면서 아프리카 이주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으로서 느끼는 한국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합니다. 그들이 좋은 이웃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황스러울 만큼 독특한 이웃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심껏 도와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의 남편은 저보다 훨씬 눈치가 빠르고 민감한데도 저와 똑같이 말합니다. 세 아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한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좋은 점은 치안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항상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기회가 많습니다. 만약 스스로 준비만 되어있으면 좋은 기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살면서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세 아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이지리아 국적을 가져서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국적을 따라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이주민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갈 때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아프리카 이주민은 도전정신이 강합니다. 아니,

매사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담대하고 주저하지 않으며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점은 기회가 많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강점이 됩니다. 우리는 '하쿠나 마타타(스와힐리어, Hakuna matata)'란 표현처럼 긍정과 수용력을 지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이익을 당해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It is a part of life)"하며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빈곤에서 터득한 생존력이 기회의 땅에서 강력한 강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어의 습득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이주민 유학생과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6년을 살면서도 한국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아프리카 이주민이라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구사하는데 대부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첨단이며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터득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황과 기도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매주 화요일에 'Bible Tuesday'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과 국제자녀들 및 한국 이웃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입니다. 제



자녀들이 훌륭하게 통역을 해주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많은 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제 기도제목은 저의 고향인 나이지리아 델타 주의 사람들이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주민 정책이 더 발전해나갔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한국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사촌 페이스 씨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수용국의 문화에 대한 입장을 주저 없이 이야기한다. 국내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가능성의 땅 아프리카와 기회의 땅 대한민국 간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도한다. (정리 문창선)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코로나19로 선교 유산과 선교운동 새 국면... 속도 아닌 방향 중요"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워싱턴 선언문 채택



▲ 코로나19로 6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선교사와 성인 MK, 지역 목회자와 선교 담당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KWMC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인세계선교대회는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북미주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선교 비전과 역량을 결집하여 선교운동을 촉진·협력·조정하기 위해 1988년부터 4년마다 개최해 온 선교 축제다. 일명 '시카고 선교대회'로 불린 이 대회는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이 연기되어 올해 6년 만에 열렸다.

이번 대회 주제는 '예수, 온 인류의 소망'(Jesus, Hope of the World), 주제 성구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롬 15:12)로,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 200여 명과 성인 선교사 자녀(MK, Missionary kids) 80여 명, 지역 목회자와 선교 담당자 400여 명과 지역 교인 등 1,000여 명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청장년층이 된 MK들도 대회 준비위원과 강사를 맡는 등 동등한 참가자로 함께했다. KWMC 관계자는 "대회에 상징적으로 MK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 그 자체로서 MK를 발견하고 동역자이자 동료로서 MK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40대 MK가 제게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가 미국 동부 한인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연합한 사실상 첫 선교 대회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한인세계선교대회는 그동안 미국 중북부 시카고휘튼대학에서 열리다가, 2016년 8차 대회는 미국 서부 LA 인근 아주사퍼시픽대학에서 열렸다. 올해 워싱턴 D.C. 지역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것은 미국 동부 지역으로는 처음이며, 대학이 아닌 교회에서 열린 것도 처음이다. KWMC는 "워싱턴

D.C., 볼티모어 등 동부 지역 교회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 동부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나 됨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WMC는 "참석자들이 총체적 선교의 플랫폼으로 비정부기구(NGO)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동안 선교사를 돕는 영역으로 인식돼 온 문화예술사역을 이 시대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재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회 마지막 날 발표한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워싱턴 선언문(Washington Manifesto)'에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 유산과 선교운동에 새 국면을 맞게 됐다"며 "급변하는 선교환경 속에서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새로운 선교환경에 적합한 전략의 연구개발이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선교의 본질 회복과 긴박성을 인식한다"며 7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확인하고(마 28:18~20; 행 1:8).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속적 삶의 실천을 통하여(롬 15:5; 고전 11:1; 막 10:45; 눅 9:23)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 선교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 현지 교회와 신학교가 가능한 모든 일에 협력할 것(전 4:12; 고전 7:7)"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 한국선교에 평신도 전문인과 다음세대 TCK, MK(Third Culture Kids, Missionary Kids)들

이 선교의 동결된 자산임을 인식하고 동원을 극대화할 것(눅 10:2)"을 다짐했으며 "△전방개척사역이 하나님 선교의 마지막 남은 과업 완수(롬 15:20)이고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가 중요한 선교적 도구(tool)"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도시선교와 의료선교, 교육선교가 중요한 하나님 선교의 플랫폼이며 △총체적 선교로 비정부기구(NGO)와 문화예술영역이 전인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선언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 조용중 KWMC 사무총장이 발표하고 있다. ©KWMC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이재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하나님께서 열방의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에 보내신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공부하는가?



오영섭 목사

랜드마커미니스트리 대표

(이전 호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주민 등록인구 51,610,695명(2022년 3월 기준) 중에 2,036,075명의 이주민을 (2020년 기준) 인구문제와 경제적 필요로 인해 수용하고 있다. 그중 국제 유학생은 161,823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8%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까지 16만 명 정도였다가, 2020년에는 15만 명대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다시 16만 명대로 증가했다.

각 대륙과 여러 나라에서 국제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모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연구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출신 국제 유학생이 전체 국제 유학생 수의 9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유럽(3.8%), 북아메리카(1.8%)가 이었다. 국제 유학생은 대학교에 등록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연수과정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가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53,695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했다. 학위과정(대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3,0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8%가 증가하였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약 73.5%를 차지했다. 비학위과정(연수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40,692명으로 전년 대비 약 32%가 감소했다.

2019년까지는 중국에서 온 국제 유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2020년에는

베트남 유학생이 58,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국이 51,824명, 우즈베키스탄 9,190명, 몽골 8,433명, 일본 2,318명, 미국 884명 순이었다. 2021년에도 베트남에서 온 국제 유학생이 59,6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국 50,819명, 우즈베키스탄 9,153명, 몽골 8,558명, 일본 2,942명, 미국 1,285명 순이었다.

2005년 서울에서 시작된 '랜드마커미니스트리'는 2014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국내외 도시세대, 국제 유학생,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실험적으로 담당해왔다. 현재 랜드마커미니스트리는 열방의 도시세대를 품으며 이들을 이주민선교시대를 넘어 마지막 때의 세계선교 완성을 위한 선교동력으로 세우는 새로운 플랫폼 선교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도시세대를 품기 위해서는, 캠퍼스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각 도시 가운데 보내신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야 한다. 혹은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마 28:18~20). 그 사명 속에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Go)"이다. 이 시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시 캠퍼스에 직접 가서 외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캠퍼스별로 팀을 나누어 주변 대학교 캠퍼스에 주중 2~3회의 파송을 보내야 한다. 전도에 나가기 전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캠퍼스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 대해 나누고 중보하는 브리핑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한 팀장을 세워 각 캠퍼스의 학부생 학기 및 한국어학당

학사일정을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전도 일정을 조정한다. 캠퍼스에 가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예배 정보가 담긴 전도지를 주며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초대장을 만들어 초대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초대하여 대화할 때는 SNS 계정이나 연락처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도시세대의 주류를 이루는 연령층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가 열광하는 음악·미디어·놀이 문화를 심분 활용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진로나 취업, 개인적인 흥미의 이유로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 혹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나는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학생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어 언어 교환을 하거나, 한국어학당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려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여, 언어 공부를 돕고 문화 교류를 도와주는 장을 마련하여 이들을 초대한다면 외국인 유학생들과 수월하게 교류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각 대학의 한국어학당 선생님들이 내주는 과제, 시험, 혹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을 초대한다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이들을 도와주며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더불어, 다양한 언어로 토론하는 리딩 클럽을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보라. 꼭 어려운 지문이나 주제가 아니어도 좋다. 일례로, 영어 리딩 클럽을 만들어 진행해보았을 때 동양권 유학생들이 관심을 보여 참여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관계를 맺은 한 중국인 유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동체 지체들이 모두 각자 다양한 은사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미활동 수업을 만들어 이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다. 제과/제빵, 디자인, 악기 등의 클래스를 기획해보라. 일정 회비를 책정하여 간단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유학생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라.

교회 내에 다음세대를 위한 아카데미 수업이 있다면 외국인 유학생을 참여시켜 함께 해보라.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좋은 달란트 외에도 유익한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중에는 이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본 유학생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들을 수업 중에 보조 교사 혹은 특별 강사로 초청하여 함께 아이들을 섬긴다면, 유학생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학생들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내에 카페와 같이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혹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일자리를 제공하여 관계 형성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이들의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고 복음을 심어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구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기관

국내 체류외국인 및 아프리카 이주민 인구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012,862명으로 전월 1,987,250명보다 1.3%(25,612명) 증가하였다.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105,204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83,167명, 단기체류외국인은 424,49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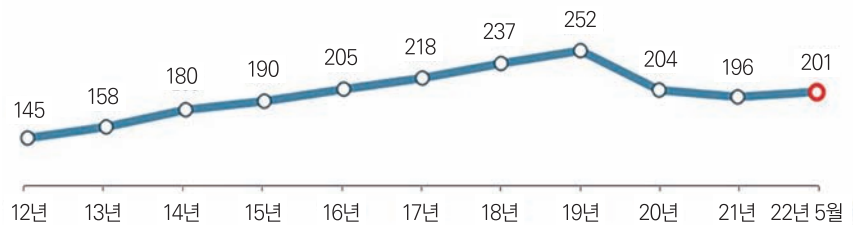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41.2%(829,749명), 베트남 10.4%(209,194명), 태국 8.7%(174,721명), 미국 7.9%(159,717명),

우즈베키스탄 3.4%(68,5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체류외국인은 아시아 84.3%(1,696,149명), 북아메리카 9.2%(186,007명), 유럽 4.4%(89,257명), 아프리카 1.0%(20,438명), 오세아니아 0.7%(13,381명), 남아메리카 0.4%(7,319명), 기타 0.01%(26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단위: 만 명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전문인칼럼

로젠탈 효과(Rosenthal Effect)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통합과, 행정학 박사
前주몽골대한민국영사



글

길강묵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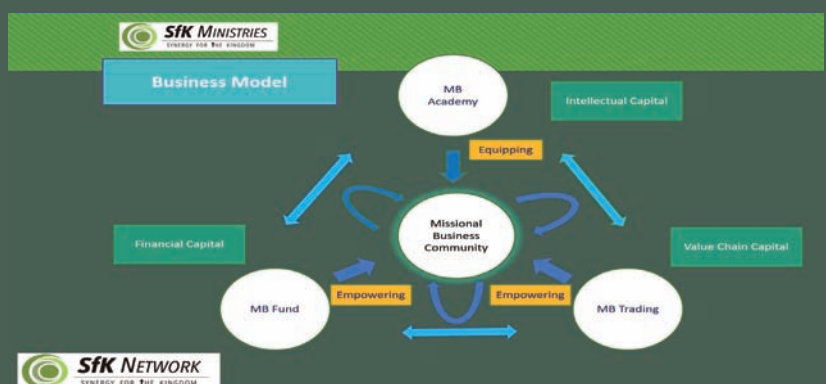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는 20퍼센트의 학생을 무작위로 뽑아 이들이 지능지수가 높은 그룹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 8개월 후, 그 그룹은 다른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이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 관심을 가지고 대한 결과였다. 하버드대 로버트 로젠탈 교수의 로젠탈 효과(Rosenthal Effect) 실험이다. 이처럼 사람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변한다. 심지어 식물도 사람의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받는다고 느낄 때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알려진다.

눈을 들어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우리는 이민의 시대,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인·이민자를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에서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불식간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외국인·이주민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동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보자. 개인의 신뢰는 사회적 신뢰라는 더 큰 가치로 확장된다. 복음 사역에도 적용해 보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마 16:16~17) 제자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신뢰와 훈련으로 되어진다.

나라	인구 (명)	나라	인구 (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179	가봉	93
이집트	2,851	부르키나파소	50
나이지리아	2,848	토고	48
모로코	1,550	모잠비크	45
가나	1,390	말라위	38
에티오피아	1,090	콩고	34
카메룬	857	마다가스카르	30
리비아	787	모리셔스	27
라이베리아	520	베냉	26
우간다	517	남수단공화국	26
알제리	482	보츠와나	25
케냐	428	소말리아	24
튀니지	365	에스와티니	23
세네갈	333	기니비사우	23
탄자니아	330	에리트레아	15
수단	300	모리타니	15
르완다	277	레소토	15
콩고민주공화국	27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3
기니	268	적도기니	12
말리	234	차드	11
코트디부아르	210	니제르	9
부룬디	164	자이르	7
앙골라	149	지부티	5
감비아	127	코모로	4
짐바브웨	120	세이셸	3
잠비아	109	상투메프린시페	2
시에라리온	100	나미비아	2
		카보베르데	1

SfK (Synergy for the Kingdom) Network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은 미국과 한국에 사역본부를 두고 현재 16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BAM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선교기업공동체에 속한 멤버기업들을 지속적인 훈련과 (Sustained Training), 임팩트 있는 투자와 (Impact Investment), 왕국적 유통을 (Kingdom Trade) 통해 총체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6개 사역 우선순위그룹이 있는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 SfK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BMT (Business Management Training) 한국어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16주동안 30개 동영상강의와 개인별 프로젝트,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실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sfklif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frican Diasporas, Diasporas in Africa

*국내 아프리카 이주민(영아권)에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디아스포라 컨선테이션을 소개하고자 영문기사를 게재합니다.



Dr. Bulus Galadima

GDN Member
Catalyst for Diasporas

People are mov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Though this movement of people was slowed down the last few years due to the pandemic, it is predicted to continue to grow as the pandemic fades. This movement of people creates great opportunities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because people move with their religions. Furthermore, the people on the move are open and receptive of new ideas.

The church needs to actively and creatively engage the people on the move. We ought to prayerfully consider what opportunities God is opening for the church as we study movement of people in our neighborhoods, workplaces, market places and schools. The way the church engages and interacts with them will determine whether they listen and accept the gospel or not.

Africans are on the move. They are moving within their countries and continent as well as around the world. They are being displaced by different reasons, conditions and motivations. This large scale and long-distance movement have gained tremendous momentum in the last few decades, though there

is a long history of migration out of Africa for centuries.

Global Christianity scholar of Emory University, Jehu Hanciles, shows how Africans were forcibly removed from their homelands to Europe and the Americas during the Slave Trade between the 16th and 19th centuries. He argues that their presence has influenced the cultures of North and South America. The recent African migration fueled by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western governmental policy changes, and globalization among many factors began around the 1960s and accelerated in the 1980s and 1990s. Contrary to the popular picture portrayed by the media, the majority of African immigrants are religious, Christian, and highly educated.

African diasporas have influenced all aspects of western society like education, business, sports and entertainment but our interest is the religious impact. One African theologian, John Mbiti said, Africans are incredibly religious. They carry their religion with them wherever they go. While Christianity is declining among Europeans, it is growing among the immigrant communities. Africans have revitalized Christianity in Europe.

Today, some of the largest churches are founded and led by

Africans, like the Embassy of the Blessed Kingdom of God for all Nations in Kyiv, Ukraine and Kingsway International Christian Centre in London, England to mention a few. African denominations like the Redeemed Christian Church of God, has an ambitious program to establish a church within five-minute driving distance. Countless denominations smaller have a global vision to preach the gospel beyond Africa and have thus embarked on church planting in the West. With the news of the decline in number of churches in the west, many African churches see the west as a mission field.

These diaspora churches are changing the face of missions by making it church-based. Evangelism and missions for them are the task of the church not a parachurch ministry unlike majority of protestant missions in the last centuries. Furthermore, for them missions is holistic. These churches meet the spiritual and physical needs of those they are bringing the gospel to. African diaspora Christians sacralize all of life. They do not know the secular sacred distinction and are holistic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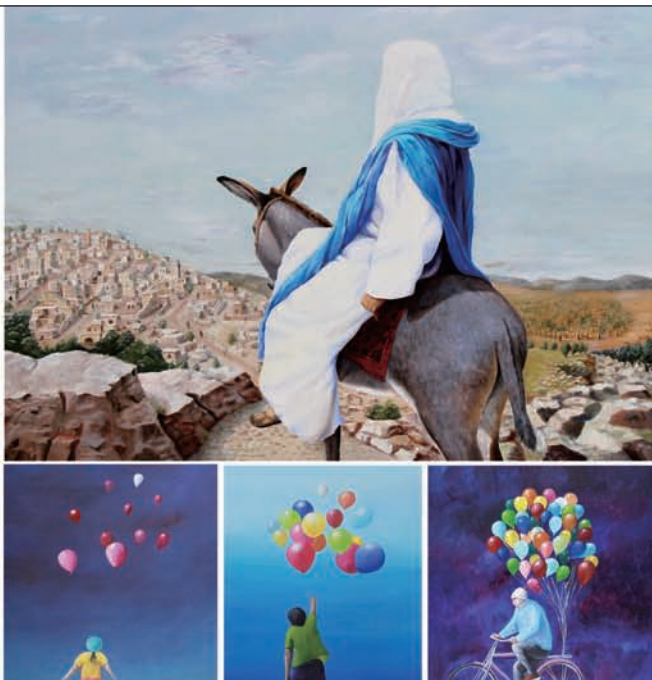
One surprising fact is that majority of those planting these churches are lay Christians! They are “deprofessionalizing” missions. Though

difficult to document, the greatest African diaspora impact on missions is the work of individuals. Modern African Diaspora Christians are profoundly remapping the face of Christian missions. The majority of the African diaspora influence is akin to the spread of Christianity in the early church where individuals professed Christ as they went even though they were not officially “sent” or commissioned by the church. [Acts 11:19~21]

African diaspora Christians in multicultural churches and predominantly white churches, they bring their spiritual and missional outlook to their congregations and lead short mission trips back to Africa. Their fervor is not merely driven by their religiosity but also by their peculiar evangelistic, Pentecostal, and missional brand of Christianity. They perceive themselves as a “missionary” whether they are sent by a church or not.

A Sierra Leonean couple, Momoh, a PhD in theology, and Josephine, a medical doctor, see themselves as missionaries and their vocation as the avenue to discharge their duty. Josephine’s colleagues in her Seattle, Washington teaching hospital know she is a Christian. They have referred Christian patients to her. She narrates how God revealed to her that he was specifically calling her to present workplace. She is

David Hanif Solo Exhibition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테러로 몸살을 앓는 곳, 그러나 그곳에는 따뜻한 웃음과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사계절과 경이 있으나 가려진 나라, 평화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제 마음속에 간직한 조국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소망하며 그림을 통해 그 마음을 담아 봅니다.

Pray for Peace of Afghanistan! 초대개인전

일시 : 2022. 9. 1(목) ~ 9. 30(금)

장소 : 봄갤러리(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데이비드 하니프 DAVID HANIF



현 A-art 대표
현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원
현 법무부 위촉 사회통합멘토로 활동
개인전, 단체전, 초대전 다수
목우공모미술대전, 기독교미술대전, 경인미술대전 등 다수 공모전 입선
동신교회 출석

there on his mission she said. Josephine has traveled to Armenia, China, Ghana, Ethiopia, Israel, etc., to teach intensive care and emergency medicine. Both locally and globally she sees her vocation as an avenue to be a witness of Christ. Africans in diaspora bring a sense of "missionhood of all believers." They show that more can be done with less.

Kwame, an engineer, and his wife, Ama, a medical doctor, from Ghana lived in Liberia before moving to Canada and eventually to the

US. They are active in their local church in prayer and missions. They formed an NGO engaged in medical and educational support in Ghana. Kwame and Ama sense God's calling to return to Ghana. They are supporting their mission work from their personal resources. Africans in diaspora are recalling us to church-based holistic missions. The story of African diaspora in mission is still being written. The second generation in diaspora are growing and participating in missions. They are fully immersed in all sectors of life like education,

health, sports, and entertainment in their new homes. They bring their religious commitment with them and they bear witness to Christ as they go. Many of them are returning to Africa to serve in the church and society.

Lausanne Global Diaspora Network (GDN) is engaged in training and equipping of the church globally for diaspora ministry. It hosts at least one conference annually. In 2021 Lausanne GDN held a virtual conference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the movement

of people and evangelization. This year, it is hosting a consultation in Cape Town, South Africa from August 23~26 to consider Afric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frica. For full information about the Global Diaspora Network of Lausanne, go to our <https://www.global-diaspora.com>.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예배의 꿈

GMS 선교사



글

최현주 목사

필자가 청년 시절 선교사로 헌신하고 처음 선교 여행을 갔을 때였다. 그때 난생처음 세계 수십 개국에서 온 천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했다. 찬양할 때 앞부분은 영어로 찬양하고 후렴은 자막을 보며 여러 나라 언어로 찬양을 드렸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각국의 사람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필자의 두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수십 개국에서 온 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만 해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만약 2백 개가 넘는 나라와 2만 개가 넘는 종족에서 구원 받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7천 개가 넘는 언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품으

신 예배의 꿈이다. 필자는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2006년부터 인도에서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을 감당해왔다. 십 년 전만 해도 비자를 비교적 쉽게 받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필자의 가정도 비자 연장이 거절되어 인도에서의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역에 대한 꿈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선교사님의 소개로 위디선교회의 MMTS(이주민선교훈련학교) 23기 훈련을 받게 되었다. 매주 이주근로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다문화 자녀, 난민, 탈북민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강의와 생생한 간증을 듣고 주말에는 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림을 경험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땅 끝 미전도종족, 비자를 받고 들어가기 힘든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와있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세계선교의 흐름은 미전도종

족 선교시대에서 이주민 선교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앞에서 처음 해외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처럼 가슴이 뛰고 흥분되기 시작했다. 필자는 단기선교와 선교훈련까지 합하면 약 20년 정도를 해외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총 네 번의 비자 거절과 한 번의 비자 연장 거절, 한 번의 출국명령서를 받아보았다. 어쩌면 이주민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지금도 여전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꿈을 꾸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계심을 느낀다. 앞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 사역과 생명의 떡을 나누는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열방의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또 다른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필자에게 주신 새로운 예배의 꿈이다.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가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성경 속 환경재난(Environmental Disasters) 이주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대국제선교회 국제이사



Dr. Tereso Casino

성경 속 이주는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형태를 띤다. 개중에는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나 환경적 요인이 이주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걸쳐 기후 변화는 사람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떠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창세기에는 기근으로 인해 이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세대가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애굽 내 팔레스틴 땅으로 (창세기 12:10), 이삭은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로(창세기 26:1, 17), 야곱의 가족은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했다(창세기 41:~45). 흥미롭게도, 이러한 각각의 움직임은 국가의 출현과 탄생을 향해 조금씩 다가간다. 자연재해의 시기에 발생한 가족들의 이주가 신생 히브리 공동체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세 세대의 환경재난 이주에 관한 고찰

첫 번째 기근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창세기 12:10)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상들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다(창세기 12:4). 그는 또 세겟으로 가서, 주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주의 걸음에 나타나셔서 지시를 내리시곤 했다.

두 번째 기근은 아들 이삭과 관련이 있었다. 수년 전 부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는 또 다른 가족 이주를 초래했다.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 말고도 이삭 시대에 기근이 들면서, 이삭은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간다(창세기 26:1, 6). 이와 같은 언급은 이삭의 지리적 이동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삭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집안과 일족이 살 땅을 주셨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창세기 26:3~5)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얼마 동안 그랄에 정착하였다.

세 번째 자연재해는 이삭의 아들인 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영향을 미쳤다. 헤브론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인해 기아에 직면했다. 기근이 다른 땅으로 확산되면서 애굽 역시 기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관리와 행정으로 오랜 가뭄에도 여유로운 실정을 유지했다. 이에 각국 백성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들이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창세기 41:57). 이 소식은 야곱의 가족에게도 전해졌다. 야곱은 "내가 들

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고 말한다(창세기 42:1~2). 이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일찍이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은 그의 성인 아들 열 명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의 가족이 히브리 민족의 탄생을 위한 중요한 공동체가 되리란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위한 통찰

환경재난 이주민이 겪는 곤경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성한 사명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근, 홍수, 가뭄 등 환경재난이 사람들을 안전지대와 고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될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둘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가족들의 움직임은 이민과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특징, 즉 초국가적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아브라함은 비록 고향에서 뿌리째 뽑혔지만, 그는 자기 삶의 정서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자기 나라(하란)로 돌려보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였다. 이삭은 하란과의 연결이 자신의 소속감과 유산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이삭의 손자인 요셉은 조상들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요셉은 온의 제사

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낏과 결혼했지만, 가문의 연줄과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라였고 성경은 이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창세기 41:51~52)

셋째로, 그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잘 정착했고 체류국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행동했다. 아브라함을 따른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장막에 머물며 체류지역에 동화되었다. 그들의 공동체는 번영했고, 가나안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장들 역시 문화적으로 통합되고 동화되었지만, 결코 그들의 종교적 유산과 관습을 훼손하지 않았다.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상숭배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낸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주신 하나님, 위험한 이주 과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환경재난은 그들이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단념시키지 못했다. 그들의 비자발적인 이주가 오히려 발전과 번영을 일으켰다. 가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주했으며, 낯선 곳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라면 기꺼이 정착했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교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MissionNaga2022

To teach, share with and challenge the Asian Young Adult Students in order that they might experience spiritual awakening and rise up to the call of world evangelization in their generation. MissionNaga Movement will be held every two years and will be regarded as foundation stone of world missions for the Asian Church.

Aug. 8th-11th 2022

Hybrid Program as ON, OFF at Eastern Bible College
Registration Link : <http://tinyurl.com/MissionNaga>

Title MissionNaga2022 the 8th Youth Mission Movement

Date Aug. 8th-11th 2022

Cohosts WiThee International

AEA Mission Commission

AEA Youth Commission

KCCN

Theme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Venue Eastern Bible College

Contact +91-8147718060, iset.ecc@gmail.com

New Normal 2022
MissionNaga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상명대 겸임교수



신상록 교수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하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청 설치의 과연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한 장관의 이번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민청 설치 논의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어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와 법무부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의 말대로 정책추진은 힘을 받겠지만, 과연 이민청이 법무부의 관료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무부에 이민청을 두면서 관료적 경직성을 탈피하는 묘수의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 이민청에서 할 일은 크게 △국경관리 △거주와 사회통합 △인구경제 대책 △글로벌적 리더십이고, 이를 위해 사람(공무원)의 정책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i) 국경관리와 거주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민청이 설치되면 대다수 국민은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은 외국인 유입과 거주를 기대할 것이다. 또한, 전염병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의 전문성과 통제는 법무부장관이 감당해야 할 임무이었으나, 검찰 이슈에 파문혀 그동안 미약했으므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챙겨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자유 왕래에 대비하고 대륙철도를 통한 국경관리를 개발할 때이다. ii)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사회단체를 포함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는 연합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에서 이주민을 경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실용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간부와 직원은 물론 지방 정부의 공무원(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등)이 이민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소통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iii) 외국인과 이민이 인구경제 대책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채택 추진되기 위해서 법무부에 정책능력과 전문가 그룹이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성장 △통계와 데이터 △고용과 실업 문제 △정주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발굴 △차년도의 외국인 유입 규모와 비자 발급 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민청 조직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의 생각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돈(예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민정책 관련 2020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중 0.3%인 1조353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여러 부처의 사업표를 분석한 것이므로 정책을 실제 시행하면서 더 증가할 것이지만, 이만큼의 예산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민청의 성공 여부는 운영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일에 달려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내가 낸 돈으로 외국인만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반감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감할 수 있다. 이민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주로 5개 부처이다. 여러 부처의 기능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되는 이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이민자가 부담하는 외국인등록수수료·귀화신청수수료·과태료·범죄금 등 약 2천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고, 90일 이상 장기거주하는 이민자가 통합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민간의 기부금, 대학교의 장학금 등을 모두 합친 '이민자 및 난민의 개발과 통합을 위한 기금'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지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에서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에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 있지만, 이는 6개의 광역시도와 256개의 시군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관할 지역에서 미등록외국인 문제 외에도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이루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관광비자 발급 △지역 대학교에 석/박사 유학생 유치 지원 △난민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서비스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민청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역할 강화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단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 전문기관/단체는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전달체계이며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은 전국 시군구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1,000개에 달하는 각종 지원기관을 조율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지역에서 혼란스러운 지원체계는 부성화의 원리(departmentalization principle)에 따라 하나로 통합시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전문성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지역 사회통합이 실패할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과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관계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감시자와 일꾼 관계처럼 경직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대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갖추었다고 해서 이민청이 자동적으로 제구실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공무원), 돈(운영예산), 관계(지역 활용)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의 남다른 의지와 실행이 기대된다.

드림위드에스출판사신간



성령에 이끌리어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복으로 환란이 평안으로 전환되는 위대한 열매가 맺혀진다



복음전파의 모든 것, 기도의 용사, 믿음으로 걸어온 삶

비법포인트 : 저자의 신앙체험을 통해 마음이 어렵고 고난의 길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저자 : 순복음살롬교회 당회장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안산시흥지방회증경회장

강연회 - 2022. 8. 9 (화) 2:00
종각영풍빌딩 지하2층 더컬쳐앤라운지

이주민 선교에 바란다

고신 전국CE 파송
스리랑카 이주민 선교사



글

이창호 선교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학, 근로, 난민,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의 국가적 이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선교적으로 본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로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흐름은 난민과 근로자 등에게서 더 명확하게 보인다. 현재 난민 발생지역과 이동지역이 그러하고, 우리나라에 이주 근로자로 오는 분들 대부분이 미전도종족 나라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써 복음에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말세에 열방을 속히 구원하 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2021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40여만 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보다 많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계획할 정도로 이주민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이주민 사역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보니 선교라고 인정받지 못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미나·위로회·체육대회 등 비본질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일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뜨겁지만, 언어나 문화에 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재정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된다. 선교단체 역시 이주민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해외선교와 동일한 비중의 훈련 및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나마 현지에서 사역하다가 귀국하신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으셔서 사역의 역동성이 부족할 수 있고, 현지 사역이 어려울 경우의 차선택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교는 단지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아니다. 타문화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며, 이러한 선교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이다. 하나님은 미전도 나라의 타문화권 사람들을 국내로 보내고 계신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섬길 전문 선교사를 훈련하고 세워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선교단체는 '처음부터' 이주민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 선교사후보생을 모집하여 현지에서 3~4년간 언어와 문화 훈련을 시키고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지인 선교사를 발굴하여 국내로 파송하고 한국인 사역자와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모교회인 부산 부민교회에서 6년간 스리랑카 근로자분들을 섬기며, 스리랑카의 문화와 언어에 무지한 상태로 이분들을 섬기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 사역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특히 언어의 한계는 복음의 한계임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



▲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의 서천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방문

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내 이주민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스리랑카 현지에 가서 3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웠다. 그리고 지금은 귀국하여 매일교회 스리랑카인 선교공동체인 살롬하우스에서 스리랑카어로 찬양과 설교를 하며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 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 과정을 개척해 왔으나, 이제는 선교단체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국가별 이주민 사역자를 모집하여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귀국한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앙양육이다. 현재 필자는 스리랑카 이주민 연합 선교회(이하 '본 선교회')에서 총무로 섬기며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본 선교회에는 스리랑카의 현지 사역자, 선교사, 국내 사역자가 연합사역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교회를 다니던 근로자가 귀국하면 현지 선교사가 방문하여 현지 교회에 연결해주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제자훈련을 한다. 그리고 출석하던 한국교회에 근로자의 신앙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한다. 귀국한 근로자들

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했던 한국 사역자들이 일 년에 한 번 스리랑카에 가서 이분들을 모아 2박 3일 부흥 집회를 한다. 본 연합회는 한국으로 파송 받을 스리랑카인 선교사 24명을 모집, 훈련, 파송, 관리하는 사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내 스리랑카 이주민 사역이 스리랑카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선교사는 실제 선교사역의 비중이 약 5%에 불과하며, 95%가 훈련된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국내 이주민,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체류하다 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자국어로 복음을 듣고 훈련되어 본국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에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배 19:30 / 목요일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땅끝이웃 : 이주민 사역 에피소드

문창선 목사

본지 발행·편집인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택시운전사에서 사역자로

가봉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임마누엘이라는 형제가 있다. 그는 가봉과 가나를 오가며 열심히 운전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별이가 시원찮고 워낙 가족이 많아서 먹고살기 힘들었던 그는 한국에 가면 돈벌이가 괜찮다는 말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놀러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디선교회를 만나 잠시 식었던 그의 믿음 생활에 다시 불이 붙었다. 더 나아가 위디신학교에 입학하여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준 사역자로 사역까지 하게 되었다.

사역에 대한 사명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군목으로 있던 미국 목사가 휴가를 가게 되었다며 두 달 동안 대신 사역해줄 사역자를 요청해온 것이다. 나는 두말 하지 않고 임마누엘

을 추천하였다. 워낙 성실한 그에게 강한 도전이 필요했던 터였다. 임마누엘은 두 달 동안 미군기지를 오가며 사역했고, 모든 미군 병사들이 그를 좋아했다. 군목이 돌아오자 모두 임마누엘을 칭찬했다. 그러자 군목은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 임마누엘을 부교역자로 초청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왔다. 사실 임마누엘보다 내가 더욱 기뻐다.

이것이 외국인근로자 선교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가봉과 가나를 오가며 택시 운전을 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던 자가, 한국에 근로자로 들어와 주의 종이 되어 제3국으로 파송되어 목회자로서 사역하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기쁘겠는가? 요즘도 연락을 주고받는 임마누엘 전도사가, 이제는 부목사가 된 그가,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다.

보육원 방문

언제부턴가 명절이 되면 각종 사회단체가 외국인에게 관심을 두고 행사를 연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며 그들을 위로한다. 다른 지역에 관광을 다녀오거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마치 명절이 그들의 날인 듯 관심을 나타내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명절이 되면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 나서곤 했다. 외국인근로자 성도들이 헌신해서 음식을 하고, 프로그램과 선물도 준비하고, 보육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아이들과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위로 방문을 하였다.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외국인근로자들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파트너가 되어 지속적인 만남을 이루어 갔다. 일회성이 아닌 적어도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하여 연락하며 사랑과 후원을 이어갔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일거리를 주고 경제적 윤택함을 허락한 이 사회에 은혜를 되돌릴 수 있었고, 그렇게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이방인인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위로가 전달되고 있었다.

이렇듯 외국인근로자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어 선행을 담당하고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나, 이들은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자 한다.



드림위드에스 신간 <약한 자를 위한 희망의 증거>

이달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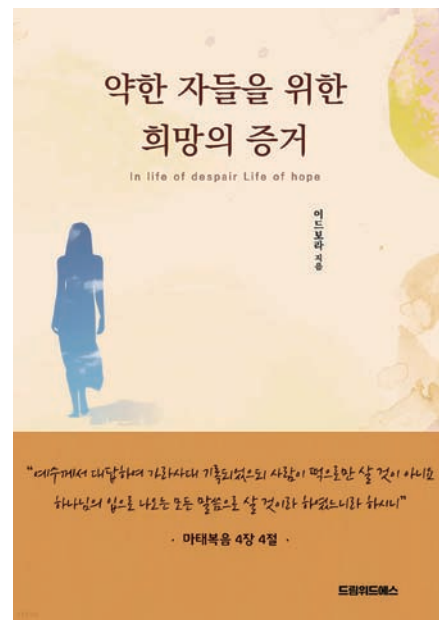
드림위드에스에서 출간한 신작, <약한 자를 위한 희망의 증거>는 우리 시대의 부요함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작가의 시선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지 않고, 언제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좇아간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서 무엇이 특별한지 모르겠다면, 혹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지, 내가 꾸고 있는 꿈이 과연 내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건지 고민이 든다면, 잠시 멈

추고 <약한 자를 위한 희망의 증거>에서 보이는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지금 무언가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신앙인으로서 매너리즘에 빠져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삶의 지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의 항해에 등대처럼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약한 자를 위한 희망의 증거>를 선택한다면, 저자가 말하는 예상치 못한 은혜와 기가 막히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사랑에 빛을 지고 사는 자로서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집필한 책, <약한 자를 위한 희망의 증거>는 이 시대 종교와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아온 저자의 인생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교인의 삶 이야기이다.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도서출판 드림위드에스에서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힐링 송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윤영실 기자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름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18: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한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kwangsung.org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일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울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아시아청년
신교동원운동**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Aug. 8th-11th 2022

Hybrid Program as ON, OFF at Eastern Bible College
Registration Link : <http://tinyurl.com/MissionNaga>

MissionNaga2022
To teach, share with and challenge the Asian Young Adult Students in order that they might experience spiritual awakening and rise up to the call of world evangelization in their generation, MissionNaga Movement will be held every two years and will be regarded as foundation stone of world missions for the Asian Church.

Title MissionNaga2022 the 8th Youth Mission Movement
Date Aug. 8th-11th 2022
Cohosts WiThee International
AEA Mission Commission
AEA Youth Commission
KCCN
Theme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Venue Eastern Bible College
Contact +91-8147718060, iset.ecc@gmail.com

New Normal MissionNaga 2022

▲ 아시아청년 신교동원 운동(아시아복음주의연맹과 위대국제교회 주관, 북동부인디아 나가랜드)

▼ 제1회 도시선교 포럼(구원의감격교회, 8월 9일, 랜드마커미네스트리)



CITY MISSION FORUM 2022
도시선교 포럼

일시 2022. 8. 9. 화요일 1:30-6:00pm
장소 구원의감격교회 (8월 9일) (8월 10일) 서울 성북구 송인로36길 30 (T. 02-968-7720) * 4호선 미아사거리역 4번출구 도보 1-2분 소요
* 현장 참여로만 진행됩니다.

대상 도시선교에 관심있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와 사역자
등록 1차 7. 31까지 1만원 (교제 포함)
2차 8. 9까지 1만5천원 (교제 포함)

등록방법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입금
1. 신청 링크 <https://forms.gle/dedoEzXtHFYBV5135>
2. 입금 확인 후 등록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 신청자명과 입금자명 동일 필수
* 입금안내: 국민은행 420801-01-263458 랜드마커1020

문의 010.3121.1604 온대별간사 landmarkministry@naver.com

발제
이상훈 교수 (사)아침묵 도시선교 연구소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전임교수
저서) 리본처럼, 차차이브, 리뉴처,
리빙크리스, 고대의 유물, 리빙크리스티안
오영섭 소장 (사)아침묵 도시선교 연구소
랜드마커미네스트리 대표
RUSTA 상임대표
생수거리는 숲 국제교회 담임

논찬
김연수 선교사 아시아태평양신학원(Asia Pacific) 부총장
아메리칸, 부대표
SMI 소장
문창선 선교사 한국이주인선교연합회(KIMA) 상임대표
위대국제교회 대표
이주인선교훈련학교 대표

패널-디스커션
한정국 선교사 아시아복음주의연맹(Asia) 미션커미션 회장
한국위기관리재단 이사장
KAMSA글로벌 코디네이터

연사
김두환 목사 구원의 감격교회 담임
저서) 그대도 감사를 받으라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경배와 찬양
랜드마커미네스트리

주관 도시선교포럼 조직위원회
후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RILAC (사) 아침묵 도시선교 연구소, 랜드마커미네스트리
협학 KIMA, 구원의 감격교회, CTS 기독교TV, GOOD TV, CGNTV, LSF 랜드마커프로덕션, 디아스포라신문



▲ 땅끝이웃선교회(MMTS 동문) 모임 및 이주민 선교 세미나

▼ 이주민 사역과 아프가니스탄의 이해(KWMA 아프간특별커미티)

▼ 6차 리스닝콜(한국이주인선교연합회)



Missions for the Afghans and the Migrants

이주민 사역과 아프가니스탄의 이해

(강사소개 및 주제)
문창선 선교사 (KIMA, Feed Children 대표) 이주민과 하나님의 도락
이정훈 선교사 (A-art 공동대표) 아프가니스탄의 이해 1
하니프 왕가 (A-art 공동대표) 아프가니스탄의 이해 2
박정훈 선교사 (함양주M센터 센터장) 남양주 아프가니스탄 사례발표
최명환 선교사 (해성M센터 센터장) 한국에서 무슬림 사역하기

대상 국내 무슬림 이주민 사역자 및 관심자
일시 2022. 7. 23. (토) 오후 3시-6시
장소 은누리M센터(안산시 단원구 신전로 8)
주최 KWMA 아프간특별커미티
(문의: 박정훈 선교사 010-2267-9531)



6차 MZ세대와 이주민선교
Listening Call

이주민들을 돕고 사역하는 한민교회는 이주민선교의 발전을 돕는
관심가들을 모시고, 요구가 절박한 이주민들을 돕는
6차 Listening Call이 KIMA의 기획으로 7월 26일(화) 오후 8:00에 열립니다.
이주민선교 관련 가장 현안사들의 이해와 대처를 위한
온라인 야간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7. 26 [화] 오후 08:00 서울

구글신청링크 : <https://forms.gle/7gNcV7g1xYodJZG>
Zoom 회의ID : 884 0466 0889 / **암호** : 018768
문의 : 하소이선교사 010-3335-2449

The 6th Listening Call is hosted and supervised by KIMA, and is held for churches
who are working with migrants and immigrant people who are seeking help.
The 6th Listening Call is held on July 26th, Tuesday, at 8:00 PM in Seoul.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in the virtual forum meeting to
discuss and share the most hot issu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and their
effective responses.

July 26th PM 8:00
Korean Immigrants' Mission Association